

2023. 11. 15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15일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서울식물원 식물연구과

서울식물원장

김 대 성

2104-9710

식물연구과장

이 완 희

2104-9750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3쪽

관련 누리집

<https://botanicpark.seoul.go.kr>

추울수록 따뜻한 서울식물원에서 포인세티아 전시를 만나보세요

- 서울식물원, 11월 16일(목)부터 15일간 크리스마스의 상징식물 ‘포인세티아’ 품종 전시
-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함께 다양한 모양과 색상의 포인세티아 14품종 500개체 전시
- 국산 포인세티아의 우수성을 알리고 새로 개발된 품종을 소개
- 전시온실 지중해관에 포토존 조성 및 포인세티아의 구조와 품종에 대한 정보소개

- ‘크리스마스’하면 떠오르는 식물 포인세티아, 여러 가지 품종의 다양한 포인세티아를 만나고 싶다면 따뜻한 온실이 있는 서울식물원을 찾아보자.
- 서울식물원은 11월 16일(목)부터 30일(목)까지 15일 동안 포인세티아 14품종 500개체를 전시한다.
 - 원산지가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인 포인세티아는 초록과 빨간색의 선명한 잎 색깔로 겨울과 크리스마스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대표 식물이다.
 - 포인세티아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화하는 특성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장식화로 자주 사용된다.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포엽이 붉게 착색되는데 흔히 꽃으로 알고 있는 빨간 부분은 포인세티아의 잎으로, 꽃은 잎 가운데 노란 열매처럼 생긴 부분이다.

- 서울식물원 내 전시온실 지중해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, 재배한 포인세티아로 국산 포인세티아의 우수성을 알리고 새로 개발된 품종을 소개하여 인지도를 높이고자 마련했다.
 -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국내 기술로 다양한 포인세티아 포엽의 색상, 형태와 규격을 개발, 육종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농가소득 및 국내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있다.

- 전시가 진행되는 전시온실 지중해관 로마지역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상케 하는 분수 조형물과 풍성한 포인세티아로 둘러싸인 포토존 공간을 연출하였고, 이스탄불지역에는 은은한 색상의 포인세티아를 집중 배치하여 연출하였다.

- 바르셀로나지역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한 포인세티아 품종을 주로 전시하고, 포인세티아 구조와 품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한다.
 - 대중적인 빨간색을 가진 품종인 ‘불꽃’, ‘레드윙’과 은은한 연두색의 ‘레몬에이드’, ‘그린스타’, 살구색의 ‘그레이스’, ‘마블벨’을 비롯한 14품종의 다양한 포인세티아 품종을 감상할 수 있다.

- 김대성 서울식물원장은 “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함께 크리스마스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식물인 포인세티아를 활용하여 서울식물원에 특색있는 공간을 연출하였다”며 “겨울에도 따뜻한 서울식물원 온실에서 가족, 연인들과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붙임 1. 포인세티아 연출 사진

<붙임 1>



로마지역 포인세티아 연출 사진



이스탄불지역 포인세티아 연출 사진



포토존 연출 사진